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씨름
안산시, 2019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제패하다!

왼쪽부터 조경덕 감독, 최희화 무궁화급 장사, 김다혜 국화급 장사, 김기백 코치 순

04 생생도시 안산 생활 속 변화들

상록 · 단원 각 1곳, 공공심야약국 운영
늦은 밤이나 연휴가 길어질 때, 문을 연 약국을 찾아 받을 동등거려야 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07 특별기고 - 추연호 안산시의회 의원

3.1운동 100주년 맞는 천년고도 안산

안산은 토착민과 외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한데 섞여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로, 우리의 옛 지명을 적극 알리고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2-13 기획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도시' 안산

정부는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 운영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예산도 156억 원이 증가했다. 안산시는 단원구 선부동에 고려인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건립했다.

15 기업탐방

주식회사 택트레이서 전철우 대표이사

"창업 초기 안산시의 다양한 지원이 있어 지금의 우리가 있다.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안산도 주목받을 수 있다"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

ANSAN DREAM TV www.ansandream.tv

발행일 2019년 2월 27일 발행인 안산시장 윤화섭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diansan.net e - 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100년 전 '3.1운동'을 이끌었던 천년고도(千年古都) 안산 수암·군자·대부 등 곳곳에서 '만세운동'... 유익수·윤병소·홍순칠 등 유공자 13명 독립운동사 책 발간, 탑 건립, 각종 공연 등 100주년 기념행사 '다양'

안산은 일제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1895) 때 주민 다수가 의병으로 참가하는 한편, 이민선·윤세영 등 지식인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최용신(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이 샘골강습소를 경영하는 등 주권회복을 위한 교육에도 앞장서 독립계몽운동에 앞장서 온 지역이다. 또한 국채보상운동 당시 안산군 6개 면 28개 리에서 605원 42전을 모금해 중앙에 송금하는 등 나라사랑에도 적극 동참했다. 특히, 안산의 독립만세운동은 수암·군자·대부 등 지역 곳곳에서 주민 대부분이 참가한 채 비폭력·평화적으로 진행됐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안산시의 독립운동 의미를 되새기며,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소개한다.

수암동 비석거리에 2천여 명 운집... 만세운동 확산과 동참에 혁혁한 공적

안산의 3.1운동은 1919년 3월 30일 수암동 비석거리에서 윤병소, 홍순칠, 유익수, 윤동욱, 김병권, 이봉문 등의 애국지사를 비롯한 주민 2천여 명이 모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어 3월 31일 대부도에서 김운규, 노병상, 홍원표 등의 애국지사들이 주도한 만세시위가 있었으며, 4월 1일 반월장터에서는 주민 600여 명이 모여 유익수 애국지사의 지휘아래 태극기를 들고 반월리, 본오리 등 거리를 행진하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4월 4일에는 군자면 경찰주재소 근처에 강은식, 김천복 등 애국지사 1천여 명이 모여 시위했고, 4월 7일에는 장현리 서당생도 권희와 장곡리 장수산 등 다수 주민이 군자면 장터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이끌며, 3.1운동의 확산과 동참에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

'독립운동사' 발간, 기념탑 건립 추진... 최용신기념관은 체험 프로그램 마련

천년고도 안산이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한 책을 발간하고 기념탑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안산의 독립운동사를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삽화를 삽입한 책(e-book 포함)을 제작, 지역 내 중학교에 배포해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도 추진한다. 이는 안산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수암동 지역에 3.1운동의 정신 및 의지를 기리고자하는 사업으로, 기념탑과 더불어 조형물 등도 조화롭게 배치할 예정이다.

3.1운동 기념식도 기존에 치러지던 안산초등학교가 아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으로 옮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신기념관(상록구 샘골서길 64)에서는 '날아라 태극기'라는 제목으로 시민들과 함께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 최용신기념관을 방문하면 독립운동의 상징물인 태극기와 기념 조형물이 어우러진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행사도 다양하다. 먼저, 중앙도서관은 기념공연으로 '컬러풀 걸즈'를 마련했다. 3월 16일 오후 예정으로, 청소년 극단 '고등어'가 항일 여성독립운동과 비밀서클 '소녀회'의 만세운동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한, 깊이 읽는 인문학 '독립운동 깊이 알기'를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4회에 걸쳐 진행한다.

감골도서관은 3월 23일 '송내관의 역사특강'을 준비, 3.1운동의 원인부터 독립과정을 궁궐이야기와 접목시켜 설명한다. 시에서는 오는 6월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러빙유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크라이닉, 마마무, 레드벨벳, 박정현, 김범수 등 인기 연예인들을 초청해 기념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3.1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수암마을전시관에서는 '1919. 3. 30. 수암(秀巖)'이라는 타이틀로 기획전을 개최, 수암동과 안산지역의 만세운동을 소개한다. 3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계획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주된 목적은 안산의 유구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산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높이는데 있다."며 "역사적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께서 조금 더 안산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며 또한, 안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산이 자랑스러운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 안산의 유구한 독립운동사는 우리의 자부심과 애郷심을 높인다 ”



안산지역 3·1 독립만세운동 관련 주요 유공자(13명)

(재판기록문을 중심으로)

성명	생몰년도	관련 독립만세 운동	형량	서훈
유익수 柳益秀	1870~1926	수암 비석거리 만세운동	징역 1년	대통령표창(1983) / 건국훈장 애족장(1990)
윤병소 尹秉召	1893~1919	수암 비석거리 만세운동	징역 10월	대통령표창(1968) / 건국훈장 애족장((1990)
홍순칠 洪淳七	1877~1932	수암 비석거리 만세운동	징역 6월	대통령표창(1992)
운동욱 尹東旭	1891~1968	수암 비석거리 만세운동	태형 90대	대통령표창(1995)
김병권 金秉權	1878~1953	수암 비석거리 만세운동	태형 90대	대통령표창(2006)
이봉문 李奉文	1890~ ?	수암 비석거리 만세운동	징역 6월	-
권희 權僖	1900~1955	군자지역 만세운동	징역 1년	대통령표창(1986) / 건국훈장 애족장(1990)
노병상 盧秉相	1891~1982	대부지역 만세운동	징역 10월	건국훈장 애족장(1990)
홍원표 洪元杓	1875~1962	대부지역 만세운동	징역 10월	건국훈장 애족장(1990)
김운규 金云圭	1894~1962	대부지역 만세운동	징역 10월	건국훈장 애족장(1990)
강은식 姜殷植	1885~ ?	군자지역 만세운동	징역 1년	건국훈장 애족장(2008)
김천복 金千福	1897~1968	군자지역 만세운동	징역 1년	-
장수산 張壽山	1900~1981	군자지역 만세운동	징역 10월	-



시민 중심으로 3.1운동 조명... “수암동 만세길을 걷다” ‘자주독립’의 역사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의 원천이 바로 3·1운동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3.1운동이 2019년 현재 100주년을 맞이한다.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준비되는 가운데 안산에서도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안산 지역의 3.1운동 역사를 돌아보는 사업이 준비

중이다.

지난 2016년 3월 1일에는 제97주년 삼일절을 맞아 ‘안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소녀상 건립에 대한 활동을 시작했고, 시민들의 참여로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상록수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도 했다.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에는 수암동 일대에서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의 주최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반도 대전환기, 자주독립

의 길을 묻다! 수암동 만세길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100년 전 1919년 3월 30일에 일어났던 수암동 비석거리 만세운동은 인근 18개 리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한 안산 최대의 만세운동이었다. 안산지역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곳을 안산시민들이 찾아가 원후마을, 비석거리, 안산초등학교, 안산향교 등 역사적 현장을 직접 걷는 행사다. 각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장소인 안산향교에서 기념식을 갖고 참여한 시민들의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100주년 행사를 통해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자주독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평화통일의 시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며 최근 가장 큰 이슈인 2차 북미정상회담과 곧 이어질 서울 남북정상회담, 4.27선언 1주년 등 평화통일의 흐름과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당일 행사에 참여하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615안산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031-411-6150)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느닷없이 밤에 아플 땐 공공심야약국으로 오세요”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 상록·단원에 각 1곳

늦은 밤이나 연휴가 길어질 때, 문을 연 약국을 찾아 발을 동동 거려야 했던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안산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

강화를 위해 2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휴일과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공공심야약국은 경기도 약사회의 추천과 진행절차를 거쳐 상록구와 단원구 각각 한 곳씩 선정했으며 현재 상록구 본오동 영동약국과 단원구 선부동 세화온누리약국 두 곳이 운영 중이다.

약국에서 만나 본 한 시민은 “퇴근시간이 늦다보니 저녁 늦게 문을 연 약국을 찾기가 어려웠다. 약을 구하지 못했다면 다음날까지 통증을 참아야 했을 텐데 공공심야약국이 있어 약을 구할 수 있었다. 저녁시간에는 약국이 한가해서 약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나 복용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고 말했다.

약물오남용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세화온누리약국 한덕희 약사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가 많지 않지만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 심야약국을 운영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주로 상비약만 찾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다양한 약을 찾는 것에 놀랐다. 심야약국 운영으로 정말로 약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보건 의료 제도의 공공부분이 강화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상업적인 목적보다 공공부분 서비스에 함께 할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의약정보들을 바로 잡아주고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약사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록수보건소 담당자는 “공공심야약국은 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연중무휴로 운



세화온누리약국 한덕희 약사

영대 안정적으로 공공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이 알려지고 정착이 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더 자세한 문의는 상록수보건소(031-481-5937)와 단원보건소(031-481-6384)로 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U-정보센터(031-481-3384)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공공심야약국 운영약국

영동약국: 상록구 용신로 382(031-418-3112)

세화온누리약국: 단원구 선부로 183(031-414-1354)

경기도체육대회 홈페이지 오픈 노랑부리백로 캐릭터 ‘로기’와 ‘다니’ 마스크트 조형물도 설치



안산에서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홈페이지(2019assports.ansan.go.kr)가 개설돼 본격적인 대회 홍보와 정보 제공에 나선다.

2월 15일 공개된 홈페이지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경기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회 소개, 경기 안내, 관광 정보 등 6개 메뉴로 구성된 홈페이지는 대회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회 종료 시까지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빠르게 대회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체육대회 홈페이지 개설은 대회 홍보와 정보제공뿐 아니라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인 안

산시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마스코트 조형물을 시청 앞에 설치했다. 이번 대회 마스코트인 ‘로기’와 ‘다니’는 안산의 시조(市鳥)인 노랑부리백로를 캐릭터화한 것으로, ‘로기’는 정정당한 스포츠의 이상을 상징하고 ‘다니’는 모두의 참여를 전달하는 손짓을 하고 있다. 조형물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가로 3.3m, 세로 2m 내외 크기다. 조형물은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앞 삼거리에 설치돼 시청 방문객은 물론 인근을 지나가는 시민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조형물은 오는 5월초까지 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대회를 홍보하고 대회 직전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으로 이동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대회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로 많은 시민들이 대회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붐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6495)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 대형마트, 165㎡ 이상의 슈퍼마켓 대상

안산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관내 대상 업소에 대해 현장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 속 비닐은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횡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물 배포 및 안내문 발송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7)





2019 올해의 관광도시
2020 안산방문의 해
사업 추진

안산시, 매력 관광도시로 뜬다

서해안갯벌 · 대부해솔길 · 김홍도축제 등 관광자원 풍부

안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와 내년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 잠재력이 큰 도시를 선정, 관광콘텐츠 개발과 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등에 3년간 국비를 지원해 해당 도시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안산은 서해안 갯벌, 대부해솔길 생태 트레킹, 염전, 유리공예, 종이공예, 도예, 승마, 요트 등 독특하고 차별화된 생태자원을 보유해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4년 12월 정부(환경부)로부터 대한민국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2017년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ESTC)를 개최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대부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등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1회 2018 안산 김홍도축제를 개최했다. 단원 김홍도는 18세기 영정조 시대 안산에서 표암 강세황 선생으로부터 그림 수업을 받았고 이후 도화서 화원이 되어 어진

화가로 대성했으며 풍속화, 산수화, 신선도 등 탁월한 기량으로 세계적 화가 반열에 오른 안산을 대표하는 인문자산이다.

김홍도축제를 계기로 지난해 약 7만여 명이 화랑유원지를 찾았으며 김홍도 그림에 나타난 풍속을 중심으로 김홍도 마을을 조성,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고 해학을 주제로 김홍도 마당극을 기획·공연하는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지난해 ‘생태탐방 명품코스 대부해솔길’을 알린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안산갈대습지를 중심으로 탐방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해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 ‘2019 안산 김홍도축제’ 개최, ‘2020 안산방문의 해’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TV·라디오·SNS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진행해 ‘관광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높여 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도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풍부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059)

안산그리너스FC, 2019시즌 출정식 성대하게 치러

임완섭 감독 “남은 기간 준비 잘 해 좋은 성적 거둘 것”



안산 그리너스 FC(대표이사 김필호)가 2월 17일 (일) 오후 롯데시네마 안산고잔점에서 개최된 ‘2019 시즌 출정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안산은 2019시즌 개막을 앞두고 팬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출정식을 개최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 서포터즈를 비롯해 안산시축구협회 소속 임원들, 각 축구 동호회 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식전부터 행사장 로비에서 진행된 각종 이벤트들과 구단 머물러 증정 행사 등으로 팬들은 붐볐고, ‘2018시즌 안산그리너스FC 선수단 골 모음’ 영상 시청과 함께 출정식 행사는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안산 구단주는 “2019년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이렇게 선수들과 팬 여러분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뜻깊은 자리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후 2019시즌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의 선수단 인사와 새

시즌 유니폼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올 시즌 새롭게 주장으로 선임된 이희성 선수에게 서포터즈가 주장 완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 끝에는 선수단이 각자 애장품들을 팬들에게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올 시즌 각오를 묻는 질문에 임완섭 감독은 “터키 안탈리아에서의 전지훈련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했고, 선수들도 큰 부상 없이 무사히 마무리했다. 남은 기간 준비를 잘 해서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단장 역시 “올 시즌은 안산그리너스FC가 새롭게 다시 도약하는 해”라며 “안산의 모든 축구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흥경기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행사종료 후에는 팬들과 선수단이 함께 프리허그와 포토타임이 진행됐다. 안산 서포터즈 베르도르의 이민철 씨는 “선수들이 직접 안내해주고 가까운 자리에서 행사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는 소감을 말했다. 한편 안산은 남은 기간 안산 등 국내에서 막바지 담금질을 한 후, 오는 3월 3일(일) 오후 1시 와~스타디움에서 대전시티즌과 ‘KEB 하나은행 K리그 2019’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올 시즌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 문의 : 안산그리너스FC(031-480-2002)



안산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118개 사업장 지도·점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권고'



수도권대기환경청 입구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안산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올해 지역 내 118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할 예정으로, 무허가(미신고) 시설, 배출 및 방지 시설 정상운영 여부, 대기오염도 검사, 운영 상황 기록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나거나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 후 집중적으로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도 지원한다. 위반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미세먼지, 악취(VOCs), 백연(유증기) 저감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

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 시설 교체 및 개선 비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대기 배출시설 4·5층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소기업으로 업체당 사업비의 80%(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여러 사업자가 대기배출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는 1억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47억여 원을 지원해 약 3천100여 대의 폐차를 권고할 예정이다. 대기 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어린이통학버스를 폐차하고 신차 구입 시 보조금도 지원하며, 그 외에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32억7천만 원을 편성해 해당 최대 1천6백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시 관계자는 “찾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다양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031-481-2893)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시청 민원실 건강측정코너 운영

안산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처리와 건강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에 '건강측정 코너'를 운영한다. 건강측정 코너에는 건강측정기구 4종(자동신장체중계, 자동혈압계, 체성분측정기, 스트레스·혈관건강측정기)과 안마의자가 비치되어 있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연중 무료로 신장·몸무게 및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아울러 체지방분석을 통해 비만도 및 신체나이를 알 수 있으며 그동안 궁금하던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 및 혈관건강 측정기는 뇌파, 맥파,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장비로 두뇌건강 점수와 신체나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위험도 등 자가검진을 통해 관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실의 건강측정코너 설치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민원여권과(031-481-2135)

안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안산시는 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2019년 무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시에서 양성한 성인지 강사가 사업 현장이나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50인 이하 기업체 30개소,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20개소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료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260)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내년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정... 생명존중 교육 실시



안산시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입양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안산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용의 50%를 지원한다. 1마리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에는 6백 마리의 입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입양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다.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동물은 2만992마리(2018년 12월말 기준)이며, 유기동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기준 1천591마리다. 사업시행 10개월 동안 108명에게 1천6만 원이 지급됐으며, 월평균 10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분양확인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진료내역 등이 명시된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통장사본 등을 안산시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안산시 농업정책과,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 구비되어 있다.

한편, 안산시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남부지회가 위탁

운영 중인 상록구 부곡동 유기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한다. 국비 6억 원, 도비 2억1천만 원과 시비를 포함해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0년 6월 건립될 예정이다. 신길동 1037-105번지 인근에 연면적 1천250㎡ 지상 3층 규모로 보호실, 치료실, 격리실, 교육실, 훈련실, 사무실, 운동장 등이 조성된다.

동물보호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할 예정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봉사 프로그램과 병행해 학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입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향후 교육 이수자에 한해 입양을 가능토록 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 교양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은 “직접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강아지들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꼭 이곳에 와서 입양할래요.”라며 안타까워했다. 박보라 유기동물보호소 총무는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동물을 되찾아가는 확률은 40%, 입양은 30%로 늘고 있는 추세다. 보호소에서는 입양신청 설문지를 작성하며 반려동물 입양에 신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23)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031-296-024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확대

안산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타 시·군 대비 가장 많은 지방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관련 국비 보조금은 1천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삭감됐지만, 안산시는 시비 보조금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32억7천만 원을 편성하고 해당 최대 1천600만 원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한다. 대상은 안산시에 공고 이전부터 주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월 13일부터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자동차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는 올해까지 환경부에서 완속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894)

특별기고



3.1운동100주년 맞는 천년고도 안산 옛 지명 활용하고 일제 잔재 청산해야



추연호
 안산시의회의장

안산현(安山縣)은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獐項口縣)으로 신라 경덕왕이 장구군(獐口郡)으로, 고려초에 안산군(安山郡)으로 고쳤다. 그 지명의 역사가 천 년이 넘는다. 충렬왕 34년(1308년), 고려시대 11대 왕인 문종(文宗, 1019~1083)이 안산에서 태어났다. 문종은 고려시대 가장 찬란한 문화의 황금기를 이룩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 세종대왕과 더불어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22대 왕 정조(正祖, 1752~1800)는 ‘살기에는 안산이 최고(生居最設安山好)’라며 안산이라는 지역을 극찬하기도 했다.

‘편안한’ 안(安) ‘뫼’ 산(山), 말 그대로 ‘편안한 마을’인 안산에는 예부터 사용되던 아름다운 지명들이 많았다. 남향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해 ‘양지마을[陽谷]’이라 불렀던 원상리(元上里)에는 아직도 양지마을 이라는 표지석이 있으며, 풍수로 보아 마을 뒤에 있는 안산(安山)이 범[虎]이 동쪽을 곧게 내려 다 보는 형상이라 하여 ‘범직(凡直)’으로 불렀던 원하리(元下里), 모낼 때만 되면 비가 와 연년세세 풍년이 든다하여 ‘시궂[時雨里]’ 등 이름만큼 의미도 뛰어났던 옛 지명들이 자자손손 이어지며 사용됐다. 특히, 양지마을은 동쪽으로 중소기업연수원 앞 사거리, 서쪽으로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남쪽으로 기간산업도로, 북쪽으로 라성호텔에 이를 정도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우리의 얼이 서려있는 옛 지명들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왜곡되기 시작했다. 특히, 일제는 ‘고려 문종’ 태생지(胎生地)인 안산의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당시 9개면(面)으로 구성돼 있던 행정구역을 3개씩 쪼개 해체시키며, 이후 7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행을 저질렀다.

일제가 저지른 우리지명 말살정책의 예는 많다. 고깔봉에서 마을에 이르는 산세가 완만하고 넓은 골짜기라 하여 노리울(障谷)이라 불렀으며, 노루장(障)자를 음차해 장상동(障上洞)이라 불렀던 곳을 문장 장(章)자로 바꿔 장상동(章上洞)이라 했다. 또, 노적가리를 쌓은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노적봉은 일제강점기 때 뜻이 분명하지 않은 가사미산(可使美山)으로 불렸다.

안산의 진산(鎭山)인 수암봉은 바위 모습이 흡사한 독수리를 닮아 취암(鷲岩) 즉 독수리바위라 불렸지만 일제강점기에 수암봉(秀岩奉)으로 개칭되었다. 또, 풍도는 고려부터 조선말까지 단풍나무 풍(楓)자를 써서 풍도(楓島)로 표기했었으나 풍년 풍(豊)자로 바뀌어 오용됐다.

이에 안산시는 잘못된 지명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전개했고, 그 결과 장상

동(獐上洞)과 노적봉이라는 이름을 어렵게 되찾을 수 있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수암봉처럼 여전히 잘못 표기 되고 있는 지명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행정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행정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몇몇 동들의 이름도 정확히 정확한 고증을 거쳐 다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명(驛名)이나 광장의 이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개통된 서해안선의 원곡역은 애초 원주민들이 시우역(時雨驛)으로 요청했지만 뜬금없이 원곡역으로 바뀌어 기존의 안산역과 헛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 안산역이 옛 수인선 시절에는 원곡역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완공 예정인 수인선의 사리역 또한 마찬가지다. 안산의 신도시 개발이전에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던 사리포구의 위치는 새로 개통될 사리역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신선한 횡감과 낭만적인 포구를 보기 위해 사리포구를 찾던 이들이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사리역을 찾을 경우, 당시의 기억조차 떠올릴 수 없는 공간에서 느낄 당혹감이 걱정된다. 실제, ‘신길온천역에 가면 온천을 즐길 수 있겠지’ 하는 기대로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안산의 중심에 있는 ‘안산문화광장’ 과 ‘호수공원’ 이라는 이름도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안산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고 있는 토착민과 외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한데 섞여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로, 우리의 옛 지명을 적극 알리고 활용하는 것은 정주의식과 애郷심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지명으로 인한 혼란도 막을 수 있다. 안산의 땅 이름을 정리해 책을 발간하는 등 향토사를 연구하고 있는 안산문화원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동 이름이나 역명을 정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옛 사리포구 전경

“쓰레기 처리과정이 궁금하면...”

안산시, 견학 프로그램 ‘클린투어’ 운영

안산시는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의 처리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클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클린투어’는 시민에게 폐기물 관련 처리시설을 공개하고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물 배출 감소를 유도하고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클린투어’는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센터, 소각장을 순회하고 청소행정 일반에 관한 설명과 시설물의 운영 상황에 대한 해설, 동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된다. 안산시민 20명 이상이 단체로 신청할 경우 45인승 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생들의 참여가 높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조기교육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클린투어를 다녀간 초등학교 교사는 “견학 이후 급식 잔반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버스를 지원하는 안산시의 행정서비스에 감사하고 현장중심의 교육에 학생들의 이해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성인 단체를 위한 맞춤형 투어도 실시한다.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의 처리과정 견학 후 대부도 방문을 원할 경우 대부도 어촌민속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클린투어 견학을 많이 오길 바라며 1년 학사일정 계획 수립기간에 맞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학생과 시민이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 재활용의 소중함과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해 좋은 교육과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6)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소식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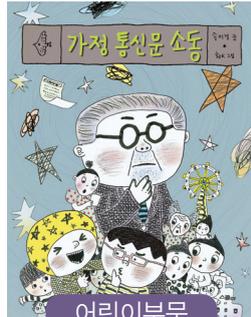
'2019 안산의 책' 선포식 성황리에 개최 '한 도시 한 책 읽기' 등 독서진흥사업 시작 알려



일반부문



청소년부문



어린이부문



안산시 중앙도서관은 2월 20일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안산의 책' 작가와 17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2019 안산의 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올 한해 안산시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독서진흥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안산의 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안산시의 대표적인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시민들의 도서 추천과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선정한다. 그 과정은 시민 추천도서 접수, 1차 선정위원회, 시민 선호도 조사, 2차 선정위원회를 거치며 선정위원은 지역 작가, 지역 내 학교 교사, 대학 도서관 관계자, 사서 교사, 시민 대표 등 총 12명으로 구성 된다.

올해는 일반 부문에 김숨 작가의 <너는 너로 살고 있다>, 청소년 부문에 박영란 작가의 <편의점 가는 기분>, 어린이 부문에 송미경 작가의 <가정통신문 소동>이 선정됐다.

이진찬 안산시부시장의 '2019 안산의 책' 선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안산의 책' 작가 3명이 함께 이번에 선정된 책에 대해 낭독콘서트 형식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안산의 책' 독서릴레이 첫 주자로 참여한 성인, 청소년, 유아 등의 시민 대표들에게 선정된 책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진찬 부시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훌륭한 도서가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안산의 책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며 '책 읽는 문화도시, 안산'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다. 또한 3명의 작가들에게도 "좋은 책을 써 주어서 고맙다"고 격려했다.

'2019 안산의 책'은 이번 선포식 이후 중앙도서관 '한 도시 한 책 읽기', 감골도서관 '하루10분 독서운동', 관산도서관 '북 크로싱' 등 독서캠페인을 비롯해 지역 내 30개 도서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각 학교에 배포돼 안산시 학생들의 독서교육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 문의 : 중앙도서관(031-481-3868)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관광홍보 SNS 서포터즈' 2기 모집

SNS 활동이 활발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

안산시는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 내 관광지와 축제, 이벤트 등을 홍보할 '안산시 관광홍보 SNS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올해 말까지 활동하면서 안산의 관광 명소와 맛집·축제·행사 등을 방문해 안산의 매력을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홍보 대사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SNS 활동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SNS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위촉장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역량강화를 위한 서포터즈 워크숍 및 우수 활동자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SNS 서포터즈의 홍보 글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안산의 숨은 매력까지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산시와 함께 성장할 열정 있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409)

희망찬 보육! 신나는 육아! 행복한 아이!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부모 및 영·유아, 어린이집과 보육 교직원, 보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역주민의 육아 지원 등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보육 교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며, 질 높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는 안산시 영유아가 될 수 있도록 보육과 양육의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한다.

영·유아 놀이실 운영

36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에게 발달수준에 적합한 영역별 놀이감 및 도서를 이용한 놀이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부모와 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영아와 부모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무료로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안산시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놀이실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영아에게 안전한 견학과 나들이 기회를 제공한다.

놀이실은 1~2개월마다 주제를 변경하여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놀이실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http://ilovemom.ansanbo6.or.kr>)를 통해 사전예약 또는 현장접수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문의는 아이♥맘카페(031-481-8683~4)로 하면 된다.

장난감과 도서 대여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발달 영역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영아가 다양한 감각적 차이를 경험하고 다차원적인 놀이 환경을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반기별(상반기, 하반기)로 모집한다. 장난감 3종과 도서 5권을 2주 동안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은 정원 외 수시 모집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문의는 아이♥맘카페로 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실 운영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보육지원이 필요해 2015년 6월부터 시행됐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서 아동등록을 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간제 보육실(031-401-2236)로 하면 된다.

◇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415-2271~3)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사회적협동조합



‘함께’라서 힘이 되는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매일하는 가사일, 하루쯤은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가정관리사는 일터인 고객의 ‘집’을 청소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전문 직업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다.”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김재순 이사장의 말이다. 협동조합 설립 취지이기도 하다.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비영리 가사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안산지역의 여성들이 모여 설립한 경제공동체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여성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2004년 설립한 공동체에서 시작했다. 현재는 2005년 발족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안산지부’와 2014년 창립한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협회와 협동조합 소속 관리사들은 전문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연 3회 이상 직무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쓴다. 관리사들의 신원보장은 물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물품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2018년부터 안산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협약을 맺고 한부모가정에 월2회 ‘우리집을 부탁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도 ‘깔끔미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대청소급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한다.

조합에서는 월1회 월례모임 시 서비스 사례를 나누며 개선점을 보완하고,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 1~2회 워크숍을 진행한다. 조합원들은 천연비누 만들기, 등산모임 등 소모임을 운영하며 친목을 다지고 ‘1:1 멘토제’를 도입해 서로 고충을 나누거나 업무의 효율을 찾기도 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과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대청소 재능기부를 하며 사회 공헌활동을



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오전 오후 기본 4시간 서비스를 한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는 조합원들과 달리 전국 30~40만 명의 가정관리사들은 보이지 않는 노동, 이른바 ‘그림자 노동’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협회 회원과 조합원들은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한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가사노동자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올 3월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재순 이사장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은 12년 이상 가족처럼 믿고 맡기며 지인에게 소개도 해준다”며 “가정관리사들 중에는 정리수납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염소독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 직업인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먼저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031-495-6840)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²⁵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예술로 만나는 '매트유(Matt you)'

“예술이 땡긴다면 예술사랑방으로 오세요”

‘매트유’는 광이 나지 않는 유약 종류를 뜻하는 이름으로, 촉각예술인 도예를 기반으로 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이다. 미술 전공에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한 원선미 전 대표는 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 좋은 기억을 만들어가고 싶어 사진영상학과를 전공한 원준식, 권예진 씨와 팀을 꾸려 청년큐브 시네랩(Cine-Lab)에 입주했다. 이들은 2년씩 대표직을 맡아 매트유를 유동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매트유에서는 기업과 학교, 복지관 등에서 단체수업을 하고 도예 키트도 제작한다. 지난해에는 안산에 정착한 각국의 이주민들을 예술에 참여시키고 생활 속에서 예술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로 ‘고려인 너머 도예프로젝트’와 ‘안산문화재단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초기 계획과는 달리 생업을 이어가면서 예술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주민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문화 등 동네의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어린이 예술프로그램 ‘꿈의 학교’와 꿈의 학교에 참여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게릴라 공방 매트유 카페 프로젝트’도 운영했다. 만드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불이 함께 만들어내는 예술인 도자기는 흙과 불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각색의 모양과 색으로 개성 있는 단 하나의 작품이 된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도자기 그릇에 담을 요리도

만들어보는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아이 디어가 덧대졌다.

원선미 전 대표는 “도예의 특성상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한데 시네랩에는 창작공간이 따로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 듯 즐겁게 예술작업을 체험했어요. 사업 초기에 영상제작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청년큐브 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를 해주어 큰 힘이 됐다.”며 “참여자는 예술로, 진행자는 그들의 삶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 성장하는 예술을 기획해 보겠다.”고 말했다.

창업 초기 원선미 대표 체제에서는 식기, 컵, 꽃병, 화병 등 도자기가 주축이 되었지만 새로운 직업이 무수히 생겨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들은 자기만의 예술에서 벗어난 커뮤니티 아트로 방향성을 잡았다. 영상학과를 졸업한 준식 씨와 예진 씨가 끌어가는 매트유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팀원들은 기대감으로 활기가 넘친다. 올해 부임한 원준식 대표는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을 아카이브작업으로 기록하고 교재도 책이 아닌 영상으로 상호작용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로 콘텐츠를 엮어나가려 한다.”고 했다.

◇ 문의 : 매트유(010-5485-7353)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문지원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INTERVIEW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 당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2월 7일 2019년 제1회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인구청년정책 5개년 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보고와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됐다. 이날 신임 김은광 공동위원장은 “2019년은 청년 친화 도시로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년의 해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청년 당사자의 대표로 선출된 문지원 부위원장(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하면.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안산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 지난 해 9월에 구성됐다. 위원은 총 20명이고,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을 포함해 국장급 공무원 5명이 당연직이고,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5명 중 청년위원이 7명이다. 시장과 함께 김은광 청년창업사관학교장이 위원장 역할을, 청년 당사자 중 한 명인 제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Q. 청년정책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안산시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위원이며, 부위원장인 나는 안산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주체로 시정에 적

극 참여하고자 한다. 올해 안에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인데,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Q. 청년들을 위한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7년 상반기에는 시에 청년 담당 부서가 없었다. 청년과 관련된 조례도 당연히 없었다. 안산시의 행정에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안산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했다. 지속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청년 당사자 그룹인 안산청년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시의원, 공무원들이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2017년 9월에 ‘안산시 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졌다. 이후 청년정책 공모전, 청년정책 토론회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고 고민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Q. 현재 안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나?

올해는 안산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첫 해다.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차원으로 ‘청년배당’과 ‘청년 구직수당’ 정책이 진행되는데, 우리 안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반기에는 안산시에서 안산 청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정책들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



Q. 앞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청년정책이 있다면?

청년들이 편안하게 찾고 마음을 둘 수 있는 ‘청년공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노동·주거·부채 등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또, 청년들 사이의 교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원, 시흥, 안양 등 주변의 많은 지역에 여러 곳의 청년공간이 있다. 그래서 선차적으로 청년들이 서로 모여 의지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청년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Q. 안산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안산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 인구에 대해 고민이 많은 안산에서 특히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청년이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들의 역할도 크다. 우리들의 생생한 고민과 어려움이 정책으로 연결되어, 실제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면 좋겠다.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청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다모아종합설비협동조합, 어려운 이웃 도우며 함께 성장

“도배·장판·타일·보일러·방수... 집수리 우리에게 맡기세요”

병원장, 학교 교장, 기업체 대표, 현직에서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도배, 타일, 종합설비 기술을 배워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베이비부머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직업훈련과정 동기생들로, 지난해 가을 3개월 동안 240시간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도배·배관·방수·도장·목공·타일·보일러·전기·열관리·냉동·중장비까지 조합원 11명이 최저 2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해 조합원 전체가 20개가 넘는 자격증을 보유했다. 다모아종합설비협동조합(이사장 조상수, 이하 다모아조합) 이야기다.

조합 살림을 꾸리는 김성 사무국장은 “조합원들이 자격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술 연마에 힘쓰고 있다”며 “전문 교육이 어디에서 열리면 누군가가 정보를 갖고 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 익혀, 집수리 업계의 경향을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다져온 실력은 제일 먼저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에 보탬이 됐다.

다모아조합은 사무실이 위치한 본오동 863-19 인근 다가구 주택을 새집으로 바꿨다. 도배와 장판, 페인트칠만으로 지어진 30년 가까운 주택을 산뜻하게 탈바꿈 시킨 것이다. 또, 선부동의 25년 넘은 원룸, 투룸 가구는 조합의 손길이 닿으면서 확 달라졌다. 수도꼭지를 포함한 주방 공간을 재배치해 넓지 않은 공간을 극대화 했다. 낡은 창틀은 뜯어내고 방음과 보온이 확실한 강화 유리창을 달았다. 열 손실을 막아주는 보일러 바닥 공사도 새로 했다. 세면대와 변기 위치, 구조를 바꾼 화장실은 방수공사와 타일 시공을 마치자 호텔 급 시설이 됐다. 지금은 조합 사무실과 이웃한 지하 개척교회 1층 작업장 공사를 하고 있다. 모든 활동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현장 감독 신재경 조합원은 조합의 활동이 어려운 이웃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출발해 조합원들의 경제상황 호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모아조합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취약한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더불어 안산시 노후 주택 수리를 맡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조상수 이사장은 “어제의 산업 역군들이 다시 뭉친 곳이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한창 때 사회 일원으로서 자기 몫을 했고, 제2의 인생을 시 승격 33주년을 맞은 안산시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하려한다.”며 “페인트칠부터 도배, 타일·보일러 시공, 옥상방수공사까지 집수리 관련한 일은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 문의 : 다모아종합설비협동조합(010-8733-7017)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INTERVIEW

66

13만4천 안산청소년의 디딤돌이 되겠다

99

김희삼 (안산시청소년재단 초대 대표이사)



안산시청소년재단 사무국이 들어설 단원청소년수련관



안산시 청소년정책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청소년재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을 상록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단법인 업무를 분리해 '안산시청소년재단'으로 출범시켰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김희삼 전 백석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안산의 청소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김희삼 대표는 경희대 산업공학과

를 거쳐 경희대대학원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롯데그룹 기획실을 비롯해 여러 기업의 대표를 역임한 경영자 출신이다. 김희삼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안산시청소년재단의 출범과 역할을 말해 달라.

안산은 인구에 비해 청소년을 위한 기관·시설이 부족하다. 청소년 기본법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안산에는 13만4천여 명의 청소년이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했다. 이마저도 시 동쪽 외곽에 위치해 선부동 초지동 서부권역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오는 4월 화랑유원지 인근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문을 연다. 단원청소년수련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육성을 위해 *메이커교육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존의 상록청소년수련관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일동·사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과 연계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재단은 상록청소년수련관(舊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단원청소년수련관, 대덕과학관,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사동청소년문화의집(舊 사동디지털문화의집), 행복예절관까지 총괄하는 중추 기관이 돼서 기존의 수련관 개념을 넘어 청소년 교류·수련·문화·예술 전 부분을 아우르는 청소년정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대내외적 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 2회 민관 시설·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연합워크숍을 열고, 시 전역에 근무하는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청소년정책 공유를 위한 교육도 마련된다. 재단 운영인력도 42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되고, 시 출연금 또한 지난해 대비 약 115% 인상된 43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Q 4월 문 여는 단원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은?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축적한 질 좋은 프로그램을 70% 가지고 간다. 진로·과학·수련·교류·문화 활동 관련 프로그램은 지난 15년 동안 진행되면서 자체적으로 안정성과 내밀성을 보여줬다. 단원청소년수련관에도 열어야 하는 필수 프로그램이

다. 나머지 30%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단원청소년수련관만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4차 산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맞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교육의 창의적 설계 환경을 단원수련관에 만들 방침이다.

또, 안산의 역사문화유적을 스토리텔링해서 가상현실(VR), 3차원 입체 물품 제조기(3D 프린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과학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입혀 미래의 모습을 새로이 만들어보는 것, 안산 청소년 연극단 운영과 화랑 유원지 인근 레저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차별화 사업도 예정하고 있다.

Q 이번 대표이사 직에 응모하게 된 동기는?

지금의 청소년들은 두 가지 유해 환경에 빠지기 쉽다. IT 기기와 유해업소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18%였던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2017년 30%로 치솟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2012년 89만개였던 것이 93만개로 늘었다. 청소년들을 이런 환경에서 빠져 나오게 해서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자 청소년재단의 할 일이다. 제도권 학교와의 상보적 관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을 선도, 교류, 능력 개발을 하게 만들어 올바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관심이 컸다.

Q 안산의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13만4천 명 안산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눈을 뜨라고,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보라고, 그곳에 나라와 그대들의 미래가 있다”는 말과 함께 또 하나는 더 많은 독서와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정신적 토양을 살찌우라고” 책 속에 자신의 미래가 있다. 책 속에 자신의 현재가 있다. 책 속에 자신의 과거가 있다. 4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미래는 창의융합인재의 시대다. 전공은 물론 자기개발·역사·문학·금융·고전 등 다방면의 서적을 읽을 것을 권한다. 그런 바탕 위에 교류 수련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리더십을 배양해서 미래를 향해 눈을 뜨고 나아가는 멋진 청소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재단이 역할을 하겠다.

“
눈을 뜨라!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보라
그곳에 나라와 그대들의
미래가 있다”

◇ 문의 : (재)안산시청소년재단(031-412-1700)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메이커교육: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이 통합적으로 학습(STEAM)되도록 하는 것. 애플과 구글, 미국 실리콘밸리 첨단기업의 창업자를 상당수가 차고지 '메이커' 출신이다.



정부, 다문화마을특구 운영 5년 연장... 예산 156억 증가 단원구 선부동에 1만7천여 고려인 위한 문화센터 운영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230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 안산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외국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다. 특히,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 그들만의 문화를 만끽하기 위해 안산으로 모여 든다. 수많은 외래어와 낯선 문자들이 섞여 새로운 활기를 만들어내는 안산. 그곳에 가면 우리나라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를 경험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 의해 운영기간이 5년 더 연장됐다.

107개국 8만6천여 명의 외국인 거주... 10년 전 국내 유일 다문화특구 지정

안산시는 한국 근대화의 특성이 압축된 도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다. 애초 30만 명을 목표로 계획했던 도시가 2019년 현재 7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성장한 안산은 노동자의 도시였고, 1992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가 시작됐다. 이후 1990년대 제조업 불황이 계속되고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떠나갔고, 그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2009년 5월 당시 안산에 거주하던 외국인은 56개국에 3만3천여 명.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할 만큼의 규모였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안산시 원곡동 일대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했다.

시는 특구 운영을 위해 다문화 인프라 구축, 다문화 인식함양 사업,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한 뒤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전개했다.

다문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외국인들에게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개소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월 평균 9천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다.

다문화 인식함양을 위해 건립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성평등, 인권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만3천여 명에게 도움을 제공했으며, 다문화 아동들의 복지, 건강,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청소년센터도 운영 중이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 참가한 외국인만 7천573명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가한 숫자는 1만3천231명에 이른다. 특구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세계문화체험관은 지금까지 6만6천434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다문화 브랜드를 특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계 음식점들을 장려하고 있으며 총 484명의 외국인 조리사에게 추천서를 발급했다. 또한, '세계인의 날' 행사 등 200여 개의 다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된 지 만 10년이 되는 2019년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07개국 8만6천여 명으로 늘었다. 약 2.6배의 증가세다.



1만7천여 고려인 위한 문화센터 운영... 문화적 다양성을 도시 경쟁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주관하고 안산시가 제출한 안산다문화마을특구의 운영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였던 특구 운영기간이 2023년까지로 5년 연장됐으며, 2023년까지 총 사업비는 2018년도까지의 예산투입액 260억8천만 원에서 156억 원이 증가한 416억8천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화사업으로는 기존 7개 사업 외에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편입됐다.

2018년 기준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1만7천281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약 20%에 달한다. 지난 2014년 6천850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최근 5년 동안 약 2.5배가 증가했다. 시는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거주하는 단원구 자곡로에 260㎡ 면적의 고려인 문화센터를 건립,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성인 및 미래세대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계획변경을 계기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약 1만7천여 명의 고려인 동포의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의 사업들 역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도시 경쟁력으로 삼고, 다문화마을특구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에 살고 있는 한국인 동포를 말함.
 *CIS는 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USSR), 즉 소련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11개국이 소련의 소멸과 함께 결성한 정치 공동체임.



다문화는 우리의 자산이자 미래의 가치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요조사

접수 인원 10명 이상 한국어교육과정 개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상록구 지역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한국어교육시설이 단원구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상록구 거주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자 수암도서관과 반월도서관에 교육시설을 설치한다. 이번에 실시한 수요조사는 최근 외국인주민들의 거주지가 상록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어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상록구 지역에 한국어교육과정 개설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어교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과(031-481-3297)



(주)광진종합물류, 외국인주민 위해 후원품 기탁

(주)광진종합물류(대표이사 김장원, 단원구 소재)가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쌀 20Kg 10포를 기탁했다. (주)광진종합물류는 해상, 항공, 보세운송, 보관, 통관 등을 서비스하는 종합물류회사로서,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장원 대표이사는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 받은 쌀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외국인주민 근로자 쉼터 5곳에 배분된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학생 대상 동포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특강

안산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2월 18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대학생들의 글로벌 다문화 감수성 향상과 동포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안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급격히 변해가는 안산의 동포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특강은 1부 '동포와 함께하는 안산(강사 신대광)'이라는 주제를 통해 동포들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과 함께 내국인들과 동포들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2부는 '다름에 대하여'(강사 수잔 사키야)라는 주제로 네팔에서 온 강사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이 동포와 다문화에 대해서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안산이 건강한 다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회의 개최 외국인주민 정주의식 향상 및 시정참여 제고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지난 2월 16일 본부 다목적실에서 외국인주민의 정주의식 향상과 시정 참여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11개국 38명의 모니터단 요원이 참석하는 2019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은 증가하는 외국이주민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외국인주민의 시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6기 모니터단(11개국 38명) 요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번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회의는 외국인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에 이미지 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시정참여 활동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협력·공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인주민의 사회 공헌과 시정참여가 중요하다"며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유튜브, 시민에 한걸음 더... 소통방송 준비

3월 15일 첫방송... 모모랜드 연우, 개그맨 이문재 등 특별출연



최근 유튜브가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안산시 공식 유튜브 방송을 대폭 재단장해 시민과의 소통강화에 나선다.

안산시는 청내에 50㎡ 규모의 유튜브 방송 공간인 '안산시 생생 스튜디오'를 새롭게 마련하고, 3월 15일 첫 방송으로 시청자를 찾아가는 중이다.

안산시 유튜브 방송은 "시에서 하는 방송은 딱딱하고 지루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민이 궁금해하는 시정 현안과 안산의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 코너를 통해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내겠다.

특히 시장이 직접 출연해 이웃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입담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안산아재 화석TV'와 안산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슈에 따라 참여하는 '생생 안산, 생생 토크'는 시민 이해를 돕는 창구기능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산도시공사와 문화재단 등 시 산하기관 관계자도 정기적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3월 15일 첫 방송에서는 안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인기 걸그룹 모모랜드의 '연우'와 KBS 개그콘서트 문재오빠로 유명한 개그맨 '이문재'가 특별출연해 안산과의 소중한 인연을 소개할 예정으로 벌써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시는 안산시 공식 유튜브 방송을 비롯해 여러 방송채널(네이버TV, 카카오투V, 네이버 블로그TV)을 활용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친근한 소통방송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리시 소식을 시민의 손에 꼭! 넣어드립니다"

'안산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 1:1 메시지 발송

안산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산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공식 개설하고 플러스친구 맺기 오픈 이벤트도 실시한다.

폭넓고 다양한 사용자층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플랫폼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할 경우, 친구 추가만 하면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으로 접할 수 있었던 시정소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경직된 공공기관의 정보전달 체계를 탈피하여 친근하고 간결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카톡 플러스친구 추가 방법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둘 다 동일하다. 카카오톡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안산시'를 검색한 후 친구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카톡 플러스친구 공식 개설일(2월 27일)을 기념하여 개설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안산시 카톡 플러스친구를 친구 추가한 대상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트콘 227잔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정보전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시민과의 공감을 위한 소통창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친근하고 부담 없는 SNS 소통방식으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생드림어 학생기자단, KBS '꿈꾸는 방송학교' 교육

직접 취재·제작한 기사로 뉴스 프로그램 제작 실습



안산시는 1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생생드림어 학생기자단'이 KBS 인재개발원 '꿈꾸는 방송학교'와 함께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생생드림어 학생기자단은 2월 26일 KBS 인재개발원을 방문해 방송 현장

과 시설을 견학하고, 직접 TV와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실습에 참여했다. TV 뉴스 제작 실습은 지난 3주 동안 '생생드림어 학생기자단'이 KBS 현직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취재하고 제작한 기사로, 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녹화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기자단은 앵커와 방송기술, 진행 PD 등 실제 방송 현장의 다양한 역할을 직접 체험하면서 협업의 중요성도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짜 뉴스를 스스로 판별하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다양한 메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KBS인재개발원 '꿈꾸는 방송학교' 관계자는 "짧지만 미디어 생산자로서 직접적인 제작 경험이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해 미디어를 제대로 읽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장래 직업은 물론 미디어에 대해 올바른 접근 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산시의 정책과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bravo@iansan.net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증명사진(또는 관련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셔야 채택됩니다.
※ 글자 크기는 10pt(포인트) 기준으로 보내주신 사연이 채택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7만원)가 지급됩니다.

생활수기

주제
안산시민 생활담 (자유주제)

분량
· A4용지 2/3 이상
· 작성자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주제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또는 안산 자랑

분량
· A4용지 절반
· 좋아하는 장소 사진(안산)

(주)텍트레이서 전철우 대표이사

안산의 한 우수벤처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우리산업을 이끄는
안산스마트허브⑥



도서 재고 관리 시범을
보이고 있는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를 소개하는
(주)텍트레이서 전철우 대표이사

안산시 역사와 한 길을 걷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는 안산 시민들의 일터이자 안산시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경쟁력 약화, 기반시설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입주기업의 영세화·소기업화 등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안산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 최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있다. (주)텍트레이서는 2015년 설립 이래 앞서가는 혁신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진 전철우 대표를 만났다.

Q 벤처사업에 뛰어들 배경은.

조지아공대에서 공부하고 미 국방성에서 엔지니어로 대테러장비 개발 업무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미약품에 입사해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전자태그) 장비를 개발했다. 또, RFID 휴대용 리더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현재 전국 약국에서 재고관리 업무에 쓰이고 있다. 기존에 바코드로 5시간 걸리던 재고관리가 5분이면 끝나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그 과정에서 재고관리 분야 기술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재고관리 로봇을 만들고 싶어서 아이টে를 고민하던 중 퇴사 후 현재 회사를 설립했다.

Q 창업 초기 짧은 시간 다양한 일들이 진행됐는데.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퇴사하고 법인을 설립한 시기는 2015년 4월이었고, 본격적인 개발업무를 시작한 것은 2016년도 9월부터였다. 그 동안 준비해왔던 기획들을 모아 3개월 정도 투자해 개발을 완성하고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이어 2017년 2월에 한양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했는데 그 심사위원 중 한분이 기술보증기금 안산지점장이었다. 그렇게 맺게 된 인연에서 우리의 기술이 인정받게 되어 기술보증기금 벤처 인증을 획득하고 2억을 지원받았다. 공간 입주와 벤처 인증, 초기 자금이 연이어 해결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Q 자율주행 기반 재고관리 자동화 로봇인 '드래곤플라이'에 대해 소개해 달라.

'드래곤플라이'는 면적의 제한 없이 관리자가 설정한 주기로 전체 창고를 자율 주행하며 위치별 개별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 리포트를 관리자에게 자동 무선 전송 가능한 재고관리 로봇이다. 이 로봇은 RFID를 이용한 자동 재고 관리 솔루션으로, 단 한 개의 장비만으로 전체 창고의 재고를 빠짐없이 스캐닝할 수 있고, 수집된 재고 정보를 서버로 자동 전송하고 재고의 위치를 3D로 표현한다. 아이টে 자체에 관심 가져주는 곳이 많다. 재고 관리는 관심을 끌만한 아이টে이고 최대 장점은 범(凡) 산업적이라는 것이다. 물류, 장서, 의류, 식품, 의료 분야 등 대부분 산업영역에서 재고관리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Q '드래곤플라이'가 실제 어떻게 쓰일 수 있나?

안산에서는 먼저 시범적으로 감골도서관에 '드래곤플라이'가 들어간다. RFID 기술이 도서관의 경우 전국 70%정도는 사용되고 있다. 유니클로, 자라 등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도 부착하고 있어 드래곤플라이가 사용 가능하다. 일본은 2025년까지 모든 편의점에 RFID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존 편의점에서 재고조사하는 속도에 비하면 1초에 200개 제품을 읽을 수 있으니 바코드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르고 혁신적 기술인 것이다. 게다가 개별 제품 추적이 가능해서 도난, 반납,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하게 된다.

RFID 태그만 붙이면 재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산될 수 있다. 안산에서 감골도서관이 잘 되면 모범 사례가 돼서 안산 다른 곳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Q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여부가 관심사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해 안산시와 경기테크노파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2018년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해 총 2개 과제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 '드래곤플라이' 개발 과제이며 2년 동안 약 12억 원 규모로 추진하게 된다. 이런 시의 노력과 지원에 정말 감사하다. 창업 초기 이런 지원들이 있었기에 우리 텍트레이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안산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Q 성공적 기업운동을 위한 특별한 비전이 있는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뒀다. 아이টে 자체가 파급력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통한다고 본다. 또 재고 관리는 산업을 망라한다. 도서, 의류, 의약품 시장은 물론, 식품, 주류, 정부조달품목관리와 가축관리 등에도 드래곤플라이 사용이 거론되고 있는 것만 해도 매우 많고 폭발력 있다. 고용효과도 클 것이다. 요즘은 의류도 유행이 빠르고 인터넷 쇼핑물 등 재고가 곧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재고관리는 핵심이다. 이렇게 시장을 파악하고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한미약품에서 근무할 때도 기획팀에 있으면서 기획과 업무를 모두 경험했다. 한미약품에서도 어쩌면 안정적인 성공이 보장될 수 있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글로벌하게 키우기 위해 뿌리치고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설득하기를 좋아하고 기획력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운도 따랐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지금까지 왔다고 본다.

Q 안산시민들께 한 말씀

안산시에 감사하다. 창업 초기에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게 해줬다. 글로벌 기업이 안산에서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럼 안산도 주목받을 수 있다.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지원해 달라. 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홍보가 곧 투자다.

◇ 문의 : (주)텍트레이서(010-5135-715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오픈스튜디오 프로젝트

‘옆집에 사는 예술가’(5)

예술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생활공간이 활짝 열렸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지역 미술작가들의 작업을 보다 밀도 있게 소개해온 ‘옆집에 사는 예술가’가 지난해 안산에 터 잡은 작가들의 삶의 철학, 작품세계, 작업과정을 나누는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했다. 안산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열 두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이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본다.



상록구 이동 먹자골목 인근에 자리한 정운기 작가의 작업실 ‘평전 먹그림 연구실’에 들어서니 은은한 목향이 가득했다. 각종 붓과 베틀, 종이뭉치가 놓여 있는 작업실 벽면에는

정운기 작가 : 들숨과 날숨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형상들 틈새와 여백, 선의 또 다른 경계가 되다

작가의 최근작들이 걸려 있다. 어릴 때부터 서예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화를 접하게 된 정운기 작가는 고등학교 시절 동양화에 매료돼 한국화를 전공, 39세 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文人畵) 초대작가로 입문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국전 초대작가 입문 후 2002년 평전 먹그림연구실을 열고 작품 활동과 후학을 양성하며, 한국문인화협회 이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장, 경기미술대전, 경향미술대전, 전국 율곡서예대전, 단원미술제, 월간서예문인화대전 등 국내 굵직한 미술대전에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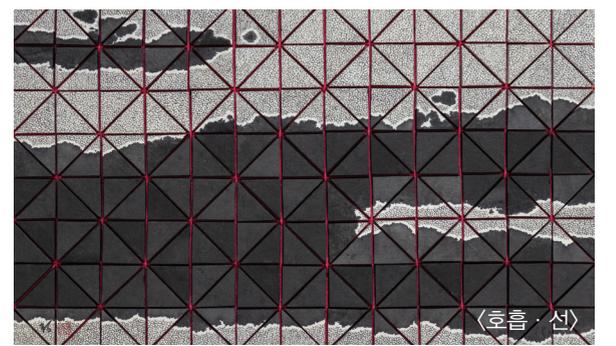
20년여 동안 9차례의 개인전 이외에도 초대전과 단체전에 참가하며 ‘산과 자연의 화가’라고 불리던 그는 2010년 이후 문인화의 격조와 정신성에 현대적 조형 감각을 추가한 새로운 작품들을 내놓으며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잔가지로 이루어진 나무의 형상이 아련한 균열과 여백으로 모였다 흩어지며 달 향아리로 표현된 작품 ‘호흡’은 너무도 한국적인 문인화가 해외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슬럼프에 빠져있던 정 작가가 2010년 겨울 눈 덮인 광덕산에 펼쳐진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정운기 작가는 “불 속에서 열을 받아 틈새를 일으키면서 대토가 본래의 바탕을 허물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간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며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지를 뻗는 것도, 우리의 사유와 신경계가 작동하는 것도 틈새를 일으킴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의 근작들은 화면 한 가운데에 여백의 상징인 달 향아리, 올레길, 연적, 봉창문을 등장시킨다. 한 포기 나무를 세세하게 그리는 대신 가능한 한 생각하고 함축하며 여백이 작품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인생지사의 ‘번뇌’와 삼라만상의 ‘틈새’에서 비롯된 여백, 세계는 태초 무엇으로 짝 채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無)의 세계요, 공허가 지배했던 세계였음을 일깨운다. 먼지가 모여 덩어리가 되듯 이름 없는 조각들이 다른 무엇이 되어 이름을 얻으며, 자연의 무수한 나무들 또한 덩어리가 되어 자연을 호호하게 함을 담아낸다.

최근작에는 먹뿐만 아니라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재료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글을 표현하는 등 그의 행로는 문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 문의 : 평전 먹그림연구실(010-3606-761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김은형 '다중의 우주'



김동현 'Water counterpoint No.1'



전시장 모습

10인의 작가, 신작 70점을 통해 세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다 경기도미술관, 생생화화(生生化化) 전시... 3월 10일까지

전시장은 시화호 10여 곳에서 샘플링한 바닷물을 간단한 음으로 변환시킨 작품이 눈에 띈다. 관람객이 직접 뇌파 측정 기계를 머리에 쓰고 있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음악이 연주되는 이 독특한 작품은 김동현 작가의 ‘워터 카운터포인트 넘버원(Water counterpoint No.1)’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환경과 사람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며 공생하고 있음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경기도미술관은 생생화화(生生化化) 2018 ‘헤어날 수 없는: 하드보일드 앤 독식(Hard-boiled & Toxic)’ 전시를 오는 3월 1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앞으로 가능성이 주목되는 10인의 작가들의 신작 70여점을 소개한다.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개인적인 관심사부터 현대사회의 구조까지 폭넓은 주제로 현대미술의 경계를 탐구하는 다양한 작업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 참가 작가들은 담담하고 건조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에 다가가기도 하고, 현실의 ‘중독적인’ 조건 속에서 냉철한 시선으로 세계를 재인식하는 작업들을 선보인다.

김은형 작가는 ‘다중의 우주’에서 폭 34m에 이르는 전시실

삼면을 도화지 삼아, 낙서하듯 자유롭게 머릿속 이미지들을 쏟아냈다. 정형화된 규격 없이 오페라, 소설, 동양화 등의 모티프로 가득 뒤덮인 전시장은 관객 또한 작품 드로잉의 일부가 되게 만들며, 관객들을 작가의 세계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박혜수 작가는 관객 스스로 생각하는 ‘보통’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는 심리테스트 ‘보통검사’를 실시해 보통의 의미를 수집한 후, 그 결과물을 희곡으로 재구성했다. 8명의 연극배우들이 보이스 드라마로 연기한 희곡은 160석 규모 객석 공간에 8개 채널 스피커로 분산돼 재생되고, 관객은 이곳에 착석해 작업에 함께 참여한다. 대화를 듣는 관객은 자연스럽게 이 연극의 한 인물로 개입해 작가가 던지는 질문을 생각하게 된다.

경기도미술관 담당 큐레이터는 “완료되지 않은 전시의 제목처럼, 직접적인 표현이나 설명 대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의 다양한 이면을 끌어올려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gmoma.ggcf.kr)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달집 태우며 새해 소원 빌어요” ‘2019 안산 정월대보름 달집축제’ 열려

대보름달이 떠오르자 대나무 잎으로 높게 쌓아 올린 달집에 불이 활활 타오른다. 도심지 공터에서 순식간에 펼쳐진 불기둥 풍경은 아이도 어른도 한참 동안 넋을 놓게 만든다. 팽과 리 소리가 울리며 풍물놀이패의 연주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귀밝이술을 나누며 풍물패를 따라 달집 주변을 돈다. 흥겨운 풍물 가락에 아이도 어른도 어깨춤이 절로 난다. 지난 2월 16일 안산문화원 주차장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달집축제 풍경이다.

안산문화원이 주최하고 풍물마당 터주, 안산민예총, 감골주민회가 주관한 이번 달집축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 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였다.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을 맞아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오곡밥과 나물, 부럼을 함께 나눴고, 시민들과 다양한 민속놀이와 공연도 즐길 수 있었다.

문화원 마당에서 아이들은 팽이 돌리기, 투호놀이, 굴렁쇠 굴리기, 딱총 쏘기 등 다양한 옛 전통놀이도 직접 체험했다. 체험도장 6개를 채우면 연날리기 세트도 선물로 받아, 넓은 주차장 공터에서 많은 가족이 바람을 맞으며 연을 날리는 풍경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이 직접 떡메치기 체험도 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든 인절미를 맛보는 재미도 컸다. 함경도 사자놀음과 한국무용, 경기민요, 사물놀이, 난타공연 등 평소 보기 힘든 전통과 세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도 축제의 흥을 더했다.

안산와리풍물놀이보존회의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길놀이로 문을 연 달집태우기 행사는 시민 모두의 만복을 기원하는 고사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각자 한해 소원을 종이에 적어 달집에 매달아 태우며 소원을 빌었다. 달집이 쓰러진 후에는 강통에 장작을 넣고 돌리는 쥐불놀이가 이어졌다. 아빠들이 직접 강통을 돌리는 시범을 보이자 머뭇거리던 아이들도 용기를 얻어 커다란 원을 만들며 처음 해보는 놀이 삼매경에 빠졌다.

이날 가족들과 함께 축제를 즐긴 조영선(40) 씨는 “동네 주민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아무 계획 없이 와서 공연, 먹거리, 놀이까지 풍성하게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요즘에는 정월대보름이라고 일부러 오곡밥이나 부럼도 챙겨 먹지 않는 추세인데, 아이들과 우리 전통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게 된 것도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봉식 안산문화원장은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로 4회째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안산시민들과 함께 무병의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를 하며 새해 소원을 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④



중국 음식 ‘꺽바로우’



항상 우리 근처에 있어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중국음식점과 안산 다문화음식거리의 중국음식점은 많은 것이 다르다. 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지다 보니 정작 중국 현지에는 없는 음식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짜장면이 그렇다. 그러나 후자는 안산역 근처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인들을 손님으로 상대하다 보니 현지 음식이 대부분이다. 짜장면, 짬뽕이 아닌 진짜 중국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안산 다문화음식거리를 방문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중국의 ‘꺽바로우’(1만5천 원)이다. 흔히 꺽바로우를 찹쌀탕수육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다른 음식이다. 꺽바로우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돼지 등심을 3mm 두께에 사각형 모양으로 썰어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다. 감자 전분과 물을 섞어 만든 물 전분에 돼지고기를 버무리다. 이때 채 썬 생강과 다진 마늘을 넣고 같이 비빈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붓고 기름 온도가 약 180℃ 정도까지 끓었을 때 돼지고기를 넣고 튀긴다. 튀김옷이 형태를 잡으면 건져서 채에 받치고, 기름 온도가 더 올라갈 때까지 끓이다가 고기를 다시 한 번

“찹쌀탕수육인가? 다른가?”

튀겨준다. 소스는 설탕과 식초를 같은 비율로 넣고, 간장과 참기름을 추가하여 만들어 둔다. 팬에 마늘, 생강을 넣어 향을 낸 후, 소스가 고기에 잘 배도록 빠르게 볶아서 접시에 담아낸다. 튀김 반죽을 만들 때 농도를 너무 묽지 않게 해야 바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두산백과 인용) 결론적으로 탕수육과는 고기의 크기, 전분을 사용한 튀김옷, 강한 식초를 사용한 시큼한 소스가 다르다.

꺽바로우는 20세기 하얼빈에서 정홍문이라는 요리사가 개발했다. 하얼빈은 러시아와 가까워 자주 러시아 손님들을 접대해야 했고, 중국의 북방 음식은 짠 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콤달콤한 음식을 즐기는 러시아 손님들을 위해 개발됐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재빨리 볶아 냈다는 뜻으로 锅爆肉(과폭육, guōbào ròu)라고 이름을 지었으나 러시아 손님들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여 锅包肉(과포육, guōbāo ròu)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꺽바로우의 맛은 탕수육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본오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365일 업무시간 외 민원서류 발급 가능**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 1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해, 365일 업무시간 외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 원부, 병적증명서,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농지원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성적(졸업)증명서 등 총 86종이 발급 가능하다.

신순식 동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휴일과 야간에도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50% 저렴하며, 또한 대기시간 단축 등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기의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이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월피동

**지역 고교생에게 행복 장학금 전달
4명에게 각 50만 원 씩 총 200만 원 지원**



월피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21일 월피동 관내 고교생 4명에게 50만원씩 총 200만원의 행복장학금을 전달했다.

월피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관내 및 인근 학교 4곳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매년 바자회 등 수익기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시병철 위원장은 “관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과 더불어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영철 동장은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봉사와 바자회를 추진해주시는 바르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지역복지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이동

**항가울갤러리 ‘이호현 사진전’개최
계절 변화에 따른 다양한 풍광 담은 20점 전시**



사이동 행정복지센터는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동 주민자치센터 3층 항가울갤러리에서 이호현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사진 총 20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계절 변화에 따른 다양한 풍광과 더불어 일상 속 다채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정명현 동장은 “항가울갤러리에서는 앞으로 매달 색다른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며, 민원인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실 때 3층 주민자치센터에 잠깐 들리셔서 항가울갤러리 사진전 관람과 함께 잠깐의 여가를 가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동

**치매걱정 없는 마을 만들기에 앞장선다!
60세 이상 대상... 월 1회 찾아가는 조기검진**



일동은 노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록수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 도구(MMSE-DS)를 이용해 무료 선별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결과 인지저하 및 치매 의심자에 대해 치매진단검사, 전문의 진료를 시행하며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CT 두부) 등을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한다.

박용남 일동장은 “치매 선별검사를 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일자(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며 “치매는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만큼 만 60세 이상 주민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매년 꼭 치매선별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동 행정복지센터(031-481-5631), 상록수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481-5857)로 문의하면 된다.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고잔동

문화마을 후원회 총회 개최 지난해 성과 공유, 올해 계획 논의



지난 1월 29일 고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18 고잔동 문화마을 후원회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는 문화마을 김상곤 회장과 박애경 사무국장의 주도로 2018년 문화마을에 후원해준 회원들과 고잔동의 단체장 등 내빈이 참석하여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2019년 후원회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상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덧 9년째다. 주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힘써 주신 덕분이다. 마을신문을 발행하며 뿌듯함을 느낀다. 지난해 경주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고잔동이 우수상을 받았다. 마을신문의 역할도 컸다. 앞으로 지속시켜야 할 고잔동의 재산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박정규 동장도 “문화마을 신문은 고잔동뿐 아니라 안산시의 자랑이다. 주민자치의 성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고잔동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2018년 감사보고와 2019년 운영계획 등이 발표됐다. 약 120여 명의 후원과 광고 수익으로 지난해 문화마을 신문의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올해는 특히 후원회 수익사업으로 바자회와 1일 찻집 등을 열기로 했다.

박애경 사무국장은 “후원금 모집과 광고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후원회 안정화에 힘쓰겠다”며 “올해도 주민들과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문화마을후원회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이날 통장협의회는 50만 원을 후원했고, 장태수 후원회원과 김상곤 회장이 기증한 쌀(10kg) 20포를 이웃에 전달했다.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중앙동

서울예술대학교, 중앙동에 사랑의 쌀 전달



서울예술대학교는 2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 15포(20kg)를 기증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했다. 이날 기증한 쌀은 학생들이 나눔 바자회를 개최해 얻은 수익금과 학교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학생들은 “나눔의 바자회를 통해 관내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동장은 “서울예술 대학교 학생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안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기탁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 받은 쌀은 독거노인 등 관내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

와동

요가교실로 생활에 활력 제공 “요가로 젊음과 건강, 아름다움 지켜요”



와동행정복지센터는 악기연주·외국어·춤·요가·무용·노래교실까지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는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야간 요가교실은 화·목 저녁 7시에 열리는데 일을 마친 퇴근길 직장인들의 인기가 높다. 요양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회원 A씨는 수년째 요가를 해오면서 하루의 피로를 푼다. “요가를 하면 멍뚫던 근육도 풀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마음도 안정되고요.” 또 다른 회원 한 사람은 수년 전 암수술 후 항암치료 중에 요가를 접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회원은 자신에게는 요가만 한 게 없다며 더 일찍 요가를 알고 배웠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했다.

요가수업은 아기자세·고양이자세·비둘기자세·물고기자세·어깨서기자세, 요가의 동작 하나하나를 취해가며 진행된다. 아기자세, 고양이 자세는 심신이 부드럽고 유연해지도록 도와준다. 유연함은 젊음이다. 근육이 위축되고 딱딱해지면서 시작되는 노화를 방지한다. 바로 누워 가슴과 양 팔꿈치, 머리, 허리로 신체를 지지하고 가슴을 위로 높게 들어 올리는 물고기 자세는 혈액순환 촉진, 폐 기능 강화와 가슴 근육이 펴지면서 쾌활한 성격과 상쾌한 기분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동작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개선해 젊음과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키도록 도와준다. 김정미 강사는 “젊음은 심신의 유연성과 관련이 깊다.”며 “꾸준히 요가를 해서 젊음 유지와 의욕적이고 창조적인 정신, 강한 의지력과 실행력,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은 강좌 당 평균 주 2회 수업에 교육비가 월 1만5천원이다. 국가유공자(가족),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한 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50% 할인된다. 수강신청은 매 월말, 월초에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강좌 수 제한은 없다.

◇ 문의: 와동행정복지센터(031-481-6601) /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원곡동

원곡동, 안강(安康)기원 ‘지신밟기’ 행사 운영



원곡동 주민자치센터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2월 18일 원곡동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무사태평과 만복을 기원하고 원곡동의 안강(安康,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에는 원곡동 주민자치센터 풍물놀이 수강생(원곡동 동아리 ‘어울림’)들이 지신풀이 때로 참여해 원곡동 내 상가 및 주택 등 곳곳을 돌며 이웃의 만복을 기원하고, 우리 전통문화인 풍물놀이를 알렸다.

백현숙 동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원곡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원곡동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문화재단 '제5회 ASAC창작희곡' 공모 “안산의 새로운 이야기를 찾습니다”... 상금 2천만 원



안산문화재단이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는 창작희곡 개발 사업 'ASAC창작희곡 공모'가 2019년 다섯 번째 작품을 공모한다. 2011년 시작한 창작희곡 공모는 선정된 작품을 공연으로 제작해 무대에 올리는 과정으로 추진되며, 현재까지 4편의 희곡 작품을 무대화했다. 공연을 목표로 제작하는 안산의 새로운 이야기 공모는 지역 콘텐츠 개발과 동시에 지역 문예회관의 창작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안산과 시흥의 옛 모습이었던 염전을 운영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제1회 가작 선정작 '염전 이야기'(김연민)를 시작으로, 부조리한 현대인의 삶을 가족 문제로 표현했던 제2회 대상 선정작 '엄마의 이력서'(최명진)가 공연된 바 있

으며, 2015년 가작 선정작인 '죽마고우'(김성보)는 네 친구의 성장 과정에 청년 세대의 문제의식을 녹여낸 낭독 공연으로 공연된 바 있다.

최근 작품이었던 2017년 제4회 대상 당선작인 '텍사스 고모'(윤미현)는 과거와 현재 이주 여성들의 삶을 통해 다문화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에 문제를 제기한 작품으로, 재단과 국립극단이 공동 제작하여 2018년 안산과 서울에서 연이어 공연됐다. 과거와 현재,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윤미현 작가의 탄탄한 희곡을 기반으로 노련한 연출가 최용훈이 이끌어 낸 이주 여성들의 숨겨진 문제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권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졌다. 또한 국내 최고의 연극 시상식인 '동아연극상' 희곡상에 선정되는 등 작년 한 해 의미 있는 희곡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작자들의 창작 열의를 독려하기 위해 초기 1천만 원이었던 대상 시상금을 2017년 4회 공모부터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는 기존 제작·발굴 과정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여 공모를 추진한다. 특히 당선작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



해 본 공연 이전에 쇼케이스(낭독 공연)를 선보이며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의 개발을 모색한다.

100분 내외의 연극 공연이 가능한 분량이어야 하며, 공모 희망자는 9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공모신청서와 작품 개요, 희곡 원고 파일 등을 재단 공연기획부 메일(asac3@naver.com)로 보내면 된다.

◇ 문의: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031-481-4025)
신선영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도시공사

교통약자를 위한 하모니콜 24시간 확대운영



안산도시공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월 18일부터 하모니콜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용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였으나, 24시간 확대운영으로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하모니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모니콜센터 운영시간 또한 기존 오전 8시~오후 7시에서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하모니콜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한 콜택시 59대로 운행되고 있다.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약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자 ▲임산부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0km까지 1,200원이며, 5km가 늘어날 때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안산도시공사 하모니콜 관계자는 “하모니콜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모두가 행복한 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모니콜 이용 관련 문의 및 신청은 하모니콜센터(1588-5410)로 전화하면 된다.

안산문화재단, '아침음악살롱'

문태국, 고상지 등 다양한 라인업... “음악과 커피를 동시에”



안산문화재단의 브런치콘서트 '아침음악살롱'이 3월 21일(목) 오전11시 문태국과 한지호의 연주로 시작된다.

아침음악살롱은 브런치콘서트라는 장르의 특별공연으로 평일 오전에 클래식 공연과 함께 커피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 첫 선을 보인 후 안산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지난해에는 관현악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중극장에서 진행했다면, 2019년도는 더욱 다양한 장르로 편성된 프로그램을 소극장 무대로 옮겨 관객과 아티스트가 더욱 섬세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3월 문태국&한지호를 시작으로 7월엔 클래식 마스터즈&발레, 9월은 작곡가 이승환의 팝과 재즈, 12월은 고상지, 이신규와 탱고무용으로 총 4차례 공연될 예정이다.

3월21일 첫 번째 공연은 2014년 카잘스콩쿠르 아시아 최초 우승자 문태국, 그리고 같은 해 ARD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오른 한지호의 만남으로 화려한 수상 이력만큼이나 음악적으로 인정받는 두 젊은 아티스트의 듀오무대가 오른다. 문태국의 첼로 음색은 1994년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있고 진중한 소리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지호는 정교하고 섬세하면서도 파

워풀한 연주와 명료한 음악적 해석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7월18일 클래식 마스터즈&발레는 동아콩쿠르 최초 비올라 우승자인 김상진, 서울실내악콩쿠르 1등, 중앙음악콩쿠르 최초 만장일치 1등 피아니스트 이미연, 스위스국 제콩쿠르 입상,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오디션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아, 2003년 폴란드의 루토슬라브스키콩쿠르에서 특별상, 2006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한 첼리스트 이정란까지 클래식계의 최고 마스터즈들이 모였다. 더불어 국내 유일의 시립발레단인 광주시립발레단의 발레와 함께 아름다운 공연을 올릴 예정이다.

9월19일은 이승환의 뮤즈밴드, 12월은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와 비올리스트 이신규의 만남이다.

2019년 아침음악살롱은 안산 지역카페인 '코이노 커피 로스터'의 후원을 받아 커피를 제공한다. 안산문화재단 커뮤니티 회원인 '뮤즈회원'으로 가입 시 4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4개 공연 모두 예매 시 50% 패키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콜센터(080-481-4000)
단체문의(031-481-4028)

안산시의회, 의원행동강령 ·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외부 전문가 초빙... 의원 대상 사례 해설 위주 강의



안산시의회 김동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마치고 이지문 강사와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다.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최근 의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의회는 지난 11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지문 (사)한국청렴본부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이같이 강의를 진행했다.

의원 2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지난해 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지문 이사장은 실제 있었던 위반 사례의 해설을 통해 의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비롯해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과 청탁금지법과의 차이점 등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 규정 중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은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강령 및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 수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도 강의 시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임했으며, 교육 말미의 질의응답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동규 의장은 인사말에서 "청렴은 의원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덕목 중 하나"라면서 "이번 교육으로 8대 의회가 깨끗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떳떳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2월 중 의원총회'를 열어 의회 공지사항을 협의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교육지원청 신축청사 부지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안산시의회 '대송단지 의원 연구회'

현장 활동... 전문가 그룹과 동행, 생태 활용방안 기초자료 수집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송단지 의원 연구회'(연구책임의원 나정숙)가 18일 안산시 대부동 일원의 대송단지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첫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월 구성된 '대송단지 의원 연구회'는 나정숙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박은경, 송바우나 의원은 연구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송습지 보존을 통한 대송단지의 생태적 활용방안 연구를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 현장활동은 그 첫 공식일정으로, 안산환경재단 및 경기만포럼, 안산산업경제 혁신센터 관계자 등 전문가 그룹과 안산시 농업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날 방문한 대송단지는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송산·서신면 지선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개발면적 4천396ha(안산시 구간 2천478ha)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1% 수준이다.

연구회 의원들은 이날 대송단지를 직접 둘러보면서 현재 대송단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단지 내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 등을 파악하고 시 및 공사 담당자로부터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단지 내 담수호와 습지 등에는 총 41과 129종의 조류가 관찰된 바 있고, 조성된 농지 중 일부 가경작 구역에서는 51개 영농법인이 벼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향후 이 일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대송단지의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적 개발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 간 공감대도 형성됐다.

나정숙 연구책임의원은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의 생태적 보물인 대송습지를 비롯한 대송단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동료의원들과 협력해 대송단지의 생태적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

화성시 아동보육과 방문...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 파악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이 19일 화성시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 및 아동 정책 파악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들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을 연구과제로 삼은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도 19일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김태희, 이경애, 김동수, 이기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아동친화팀 관계자들과 화성시 아동보육과를 방문, 화성시 측으로부터 화성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과 아동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난해 6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화성시는 앞서 2017년부터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2년에 걸쳐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아동권리강사 양성을 통한 아동권리교육과 아동의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사업 운영 등으로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모임 의원들은 화성시 관계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화성시의 노하우를 파악하고 안산에 적합한 아동친화도시 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안산의 아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구성된 시 아동친화 전담팀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공동체를 구성해 인구 문제의 실마리도 찾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회의 말미에 화성시 측이 준비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 관련 PT 자료를 시청하며 이날 방문을 갈무리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1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를 실시해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을 포함한 총 5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을 마쳤으며, 이들 단체는 아동, 장애인 복지, 주거, 생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연구활동을 벌인다.



우리 아가 빵 터졌다

아기이름: 남호준 출생년월: 2018년 12월 태명: 곱이
태몽: 비단잉어 등에 타고 함께 수영하는 꿈

이 녀석이 천장에 매단 새 모양 장난감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빵 터졌네요.

자랄 때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도 많이 하기에 내 배꼽이 아파서 태명이 그렇게 되었네요.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신 할머니가 나 어릴 적에 참 잘해주셨는데 어느 날 명주치마 입으신 할머니가 나타나 나를 이끌고 동네 개울가를 데려가 수영을 했어요. 그때 비단잉어 등에 타고 함께 수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화들짝 놀라서 깨어보니 꿈. 그런데 그게 태몽이었습시다.

둘째 아이도 이 녀석 첫째처럼 순풍 날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차하면 셋째도요? ㅎㅎ.

아기에게 주는 격려의 말

- ♥엄마: 건강이 최고야.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으렴.
- ♥아빠: 사랑해 내아들. 우리집 장손인거 잊지 마

· 이영애(단원구 원곡동)



영양플러스 대상자 상시모집

안산시는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으로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의 신규대상자를 상시모집 한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격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가정(4인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20,060원, 지역가입자 113,534원)으로 저체중이나 저신장 등 성장부진, 빈혈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출산·수유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양위험요인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보충식품(쌀, 감자, 당근, 우유 등)을 공급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031-481-5968), 단원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031-481-6479)로 문의하면 된다.



생활수기

버스기사님은 안산의 진정한 홍보대사!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면서 하루 일과 중 가장 먼저 만나는 외부인이 바로 버스 운전 기사님이다.

바로 이틀 전, “우리 안산에는 정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한낮에 버스에 탔는데 운전기사님이 먼저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춥죠?”라며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버스에 타던 승객들도 너나없이 “안녕하세요”라며 답례인사를 한다. 나도 “네,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버스가 차선을 바꿔 정류장을 막 빠져나가려 했을 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버스를 잡기 위해 험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럴 때 대체로 운전사들은 귀찮아하며 가속 페달을 밟기 일쑤지만, 이 운전기사님은 차를 세우고 이 남자를 태웠다. 그리고 그 남자한테 “뛰어오시느라 숨차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웃어줬다.

버스에 탄 남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차례 하며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버스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 남자는 어떤 비즈니스에 늦어 큰 결례를 했을 수도 있음은 물론, 그로인해 운전기사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가 즐겁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 역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버스가 그냥 지나쳐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고, 그날 온종일 원망스러운 버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 있었으니 이 운전기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한 여성분은 안산에는 초행길인 듯 했다. 기사님에게 안산 중앙도서관에 갈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나고 묻자 버스기사님은 그분이 찾으시는 곳을 버스 속도를 늦추면서 친절히 설명해주셨다.

추면서 친절히 설명해주셨다.

낮에 만난 친절한 운전기사님 덕분에 그날 하루는 보람찼고, 퇴근길에 다시 그 버스를 탔으면 하는 기대마저 생겼다. 비록 그 운전기사님을 다시 만나진 못했지만 운전사가 몸소 보여준 친절을 주위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안산에 오신 초행 손님들은 얼마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다시 또 와보고 싶은 도시로 기억하며... 이런 분들이야말로 안산을 빛내는 진정한 홍보대사 아닐까.

삭막한 현대인들의 가슴에 꺼져가는 친절과 배려심을 일깨워주신 기사님. 이제 버스 정거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즐겁기만 하다.

· 유남규(단원구 대부동)



THE 65TH GYEONGGIDO SPORTS FESTIVAL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2019.05.09~05.11. | 개최식 05.09.(목) 18:00 와~스타디움



THE 9TH GYEONGGIDO PARA GAMES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19.05.23~05.25. | 개최식 05.23.(목) 16:00 올림픽기념관



독자 투고

아름답고 정겨운 교복 나눔행사

남학생들은 하얀 플라스틱 칼라에 단정하게 채운 호크와 단추와 날이 선 바지, 여학생들은 검정색 세라복에 검정색 코트. 이는 1970년대 학생 교복의 전형이었다. 남학생들은 가끔 모자를 빼딱하게 쓰거나, 여학생들 역시 운동화 뒷굽을 구겨 신기도 했지만 학창시절의 멋이려니 하고 선생님들은 귀엽게 봐주곤 했다. 질풍노도의 시절엔 누구나 그럴듯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일 때 교복을 입으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파릇파릇한 소년, 소녀가 장래의 꿈을 꿀 때도 교복은 항상 옆에 걸려 있었다. 공부 잘하는 선배의 교복을 물려받고 그 옷만 입으면 왠지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뿌듯함이 있었다. 그게 우리 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 중고등학교를 다닌 기성세대의 모습이었다. 그러던 시절이 지나 교복 자율화가 이뤄졌고, 그것이 사복으로 바뀌면서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키자 이제 다시 교복으로 돌아왔다. 2월 23일에 안산 시청 별관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나눔 축제'가 열렸다. 우리 안산시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교복을 기증받아 유상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산시에서 주관해 예전에는 교복 물려주기도 했었다. 아름답고 정겨운 행사였다. 어차피 얻어 입히지 않는 한 새로 구입하려면 적잖은 돈이 들 어갈 수밖에 없기에 학부모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줄 방법은 교복 물려주기가 아닐까 싶다. 필자도 지금은 다 큰 딸 둘의 교복을 대물림해서 입혔다. 아이들은 선배 언니들이 입었던 교복을 나눔으로 얻어 입고 알찬 학창시절을 보냈다. 교복 물려주기 나 이번에 안산시에서 실시하는 교복 나눔 축제나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선·



후배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축매제가 된다는 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 심희수(단원구 초지동)



독자 투고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고등학교 때 만난 불어 선생님은 아침에 등교하면서 서점에 들러 책 2권을 구입해서 하루를 지내는 동안 틈틈이 그 책을 다 읽으신다고 했다. 시인이기도 하시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기도 하다. 그분의 언행일치와 따뜻한 덕분인지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것이 책읽기였다.

가끔씩 카페나 도서관에서 차 한 잔과 노트, 볼펜 그리고 책 한권을 갖고 여유를 부리고 낭만을 누릴 때가 있다. 새 책이 좋아서 도서관 신간코너에서 이런저런 책을 고르기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지역서점 바로 대출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따끈따끈한 신간을 서점에서 직접 대출하고 도서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새 책을 읽고 반납할 수 있게 되었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줄 알고 관망만 했었는데, 시도 해 보니 설레이도록 좋았다.

살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보니 새 책을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종이 냄새 맡으며 뽀뽀한 책장을 넘기며 읽는 느낌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을 때는 잘 느낄 수 없었다. 지역서점 바로 대출 덕분에 가족과 함께 서점 나들이도 하고 서점에서 차도 마시며 호사도 누리고 이 시대에 어떤 책들이 나오는지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달에 5권이나 새 책을 신청해서 읽을 수 있으니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40대 중반의 삶을 지나며 책을 나를 다독여주고 생각의 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자녀양육의 지혜나 인간관계의 팁 등을 책속에서 발견하기도 한다. 이런 책과 산뜻하게 첫 만남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삶에 윤희류가 되고 활력소가 된다. 다섯 권의 책이 서점에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고 서점을 향해가는 마음이 쿵쿵쿵거리며 좋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고, 한 아름 책을 들고 집에 오는 내내 큰 선물을 안고 오는 것 같아 행복해진다. 작지 않지만 나에게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된다.

· 이옥자(단원구 고잔동)



독자 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사람들

결혼하기 전 지금의 남편과 함께 강원도에 위치한 워터파크에 놀러간 적이 있다. 버스를 내리자마자 수많은 인파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놀 수 있을 정도로 큰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곳을 나는 처음 와보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조금 큰 수영장 정도로 생각한 내 스스로가 좀 민망했다.

입장 후,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야~ ㅇㅇ야"라고 소리치며 누군가에게 다가갔다. 알고보니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우연치 않게 그것에서 마주친 것이다. 5천만 인구가 사는 한국인데, 이런 우연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며 친구 내외와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왔다.

결혼 후, 아이가 없을 때 조금이라도 더 돌아다녀야 한다며 매년 한 번 씩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 한번은 패키지로 보라카이를 간적이 있는데 안산에 사는 신혼부부를 만났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안산에 산다고 하니 어찌나 반갑고 신기하던지. 패키지에 참여한 인원이 몇이나 된다고 그중에 안산 사람이 4명이나 될까 싶었다.

최근엔 자유여행으로 스페인을 다녀왔다. 곧 아이를 가질 예정이라서 큰 마음먹고 간 유럽여행이었다. 머나먼 땅에서 종종 들리는 한국말이 반갑기도 하며, 한국인들이 참여 기저기 많이도 여행 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관광지에서 들리는 한국어에 고개를 돌려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누구더

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고등학교 친구였다. 지금은 연락하고 있지 않았지만 한때는 매우 친했던 친구가 남편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야~ ㅇㅇ야"라고 소리쳤다. 좁은 안산에서도 10년 넘게 한번을 안 마주쳤는데 이 먼 곳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이 먼 스페인에서, 안산사람을!! 그것도 친구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나는 타지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득 헤어지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안산에서 친구를 마주쳤더라도 이렇게 기뻐했을까?'

아니, 아닐 것이다. 안산에서 그동안 우연히 보게 된 옛 친구(동창)를 외면한 적이 몇 번이었던가... 아마 이 친구도 안산에서 만났다면 난 외면해버렸을지도 모른다. 타지에서 생각지도 못한 친구를 만났기에 더 반갑고 나도 모르게 아는 척을 했던 것 같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친구를 봤을 때처럼 기쁨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한혜진(상록구 반월동)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 YTN ⇨ '강소특구' 지정해 '안산'을 첨단도시로(2.1.)
- 연합뉴스TV ⇨ 경기 안산에 '강소 연구개발특구' 추진...혁신거점 기대(2.6.)
- OBS 뉴스 ⇨ 안산시, 드론 띄워 땅값 매긴다...시간·비용 절약(2.6.)
- OBS 뉴스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5년 연장...416억 투입(2.8.)
- OBS 뉴스 ⇨ 안산시, '하모니콜' 24시간 확대 운영(2.25.)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적십자회비 참여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됩니다.

- ◇ 집중모금기간 : 2019.2.15.~4.30.
- ◇ 문의 : 대한적십자사(1577-8179)
- ※ 대한적십자 홈페이지 : www.redcross.or.kr

**여성문학회(시민문학대학)강좌
수시 회원 모집**

- ◇ 강사 : 한양대학교 현직교수
- ◇ 강의장소 : 한양대학교 ERICA 시문학과
- ◇ 개설과목 : 시 창작1, 시 창작2, 수필 창작, 문법
- ◇ 문의 : 안산시 여성문학회(010-6336-7116)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

- ◇ 신고기간 : 2019.2.18.~4.19.
- ◇ 신고대상 : 낙석·붕괴·도로 파손, 과속·과적운전,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안전신문고)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 일시 : 2019.3.7.(목) 14:00 ~ 16:00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민원동 2층) (舊 단원보건소) 1층 로비
- ◇ 대상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 ◇ 내용 :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를 마련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882)

2019년도 민방위 기본교육 안내

- ◇ 기간 : 3.11.~6.28.
- ◇ 시간 : 1일 4시간
 - 평일(1일/2회) : 9시~13시 / 14시~18시
 - 야간(총 5회) : 19시~23시(3.21,4.11,4.25,6.13,6.27)
 - 주말(총 3회) : 9시~13시(3.30,4.20,6.8)
- ◇ 대상자 : 민방위 1~4년차
- ◇ 교육장소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상록구 예술광장로 32)
- ◇ 문의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031-481-3165)

치아보듬 구강건강교실

- ◇ 교육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6~7세) (※10명이상 25명이하 단체)
- ◇ 운영기간 : 2019.3월~11월(9개월)
- ◇ 운영일시 : 매주 수요일 10:00 ~ 11:20(1시간 20분)
- ◇ 교육장소 : 상록수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 ◇ 신청방법 :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신청(http://snshealth.iansan.net → 열린광장 → 구강교육 신청란)
-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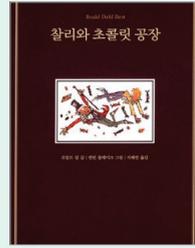
안산919취업광장

- ◇ 기간 : 2019.3.19.(화) 14시~16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 ◇ 주최/주관 : 안산시, 안산고용복지+센터
- ◇ 내용 : 구인·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
- ◇ 문의 : 481-2277/481-2919



책 읽는 안산 / 3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넬라 판타지아, 환상 속에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저자 로알드 달 / 출판사 시공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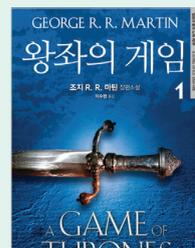
초대장은 윌리 원가의 초콜릿 포장지 속에 들어 있다. 황금빛 초대장을 찾은 어린이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전설적인 윌리 원가의 초콜릿 공장을 견학하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초콜릿과 사탕을 선물로 받는다. 엄청난 게 마구 먹어대는 아우구스투스 굴룸, 세상에서 제일 버릇없는 버루카 솔트, 늘 짹짹 껌만 씹어대는 바이올렛 부리가드, 온종일 TV 앞에만 붙어 사는 마이크 티비, 말라 갱이 찰리가 이 엄청난 행운을 차지한다.



위저드 베이커리

저자 구병모 / 출판사 창비

제2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한 소년이 우연히 몸을 피한 빵집에서 벌어지는 한여름의 이야기를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에 판타지적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 안 그래도 새 어머니 배 선생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소년은 여동생 무희를 성추행했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자 집에서 쫓기듯 뛰쳐온다.



왕좌의 게임

저자 샤를로테 루카스 / 출판사 북평

웨스테로스 대륙의 칠왕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다룬 이 소설에서 작가는 네 개의 대륙부터 무기 하나, 심지어는 풀 한 포기까지 모두 창조해 내고 개연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장미 전쟁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듯이 온갖 권모술수와 지략이 난무하는 현실적인 서사를 펼쳐 보인다. 판타지의 무대 위에 영원한 연대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승리자도 없다는 냉혹하고도 공평한 섭리를 그렸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깨끗한 선거로
조합의 밝은 미래가
피어납니다

투명한수목, 깨끗한수목, 조합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본분한 우리 조합 조합원의 한 표로 만듭니다

농업 | 수업 | 산림조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7시부터 ~ 오후 5시까지
선거 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원

조합장선거 범규안내 및 위반행위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